

신문 산업 현주소와 미래 로드맵 제시

매년 유럽에서 신문 관련 전문 전시회인 IfraExpo에 다녀왔다. Ifra는 'INCA-FIEJ Research Association'를 뜻하는 것으로서 'INCA'는 'International Newspaper Colour Association'를, 'FIEJ'는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Editeurs de Journaux(세계신문협회)'를 의미한다.

신문 관련 최대의 전문 전시회

1961년에 독일 다름슈타트(Darmstadt)에서 세계 17개국 2200여 언론사 및 언론기술, 제작관련 업체가 모여 출발한 Ifra는 1970년도에 처음으로 전시회를 개최, 올해로 37회째를 맞았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RAI Exhibition Centre에서 10월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IfraExpo2006은 신문 제작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관련 32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국제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 등의 행사로 신문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다양하게 진행됐다.

3만㎡의 규모로 개최된 IfraExpo2006은 신문 제작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전문전시회로 첨단화된 신문제작 관련 기술을 선보였으며 그 기술의 수위가 나날이 발전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전시는 워크플로, 프리프레스, 프레스 등으로 구별되어 이뤄졌으며 쇠판기를 대신하여 CTP로 변화하는 최근의 동향에 따라 각 CTP 제조사는 장비별 장점 소개에 최선을 다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유럽에서 발행되는 대부분의 신문이 타블로이드 판형이어서 국내 신문사 판형에 적합한지에



전시회장 앞에서 기념촬영 모습(왼쪽에서 다섯번째가 필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성도GL과 함께 참가한 고객들도 이러한 점에 유의하며 각 CTP 장비 및 워크플로가 소속 신문사별로 적합한지에 대해 유의하며 확인했다.

국내 신문사 접목 방안에 대한 고민의 기회

이번 박람회는 각 섹션별로 주제를 달리하였으며 각각의 특성에 대해 세분화해 신문의 제작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전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바이올렛 광원을 기초로 하는 CTP 및 판재를 보안하고 기능과 생산성을 향상시킨 많은 제품들이 선보였으며 FUJIFILM도 신문사 전용 CTP인 Luxel News CTP를 전시했다. 이번 IfraExpo2006은 첨단화하고 다양한 기능의 워크플로, 소프트웨어, CTP를 통해 세계 신문인쇄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내 신문사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주었다.

조철호 · 성도GL(주) 영업마케팅본부 차장